

－ 해제

구 민 석

1. 서지사항

『경보신편(輕寶新篇)』은 『경험방(經驗方)』과 합본되어 있는 연대 미상, 저자 미상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24.2 × 13.7cm이며 총 76쪽의 분량이다.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경보신편』은 『경험방』과 합본되어 있으므로 표지에는 『경험방』이라는 서명과 “甲戌五月日”의 간행연월이 서명 바로 옆에 표기되어 있다. 표지 뒷면부터 『경험방』의 내용이 110쪽 가량 이어지다가, 『경보신편』이라는 제목과 “壬戌六月”이라는 간행연월이 쓰여 있는 쪽이 등장하고 『경보신편』의 본문 내용이 이어진다.

『경보신편』이란 서명에서, ‘輕寶’는 사전적으로 귀금속·보석·얇은 비단 따위의 휴대하기 쉬운 귀중품을 의미한다. 『사기·월왕구천세가(史記·越王勾踐世家)』에서 “경보와 주옥을 꾸려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乃裝其輕寶珠玉, 自與其私徒屬乘舟浮海以行, 終不反.).”라고 한 것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착안한다면 ‘輕寶’란 이 책이 지니는 높은 가치를 보물에 비유하면서도, 휴대하기 쉬운 책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寶’라는 글자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서명에도 등장하는 글자이며 ‘輕’을 동사로 본다면, 『동의보감』의 요체만을 담아서 가볍게 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보신편』의 본문 중에는 『동의보감』과 똑같은 내

용이 더러 필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처방과 의학적 논리가 『동의보감』에서 인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輕寶’는 학식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하므로, 이 책의 서명은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서발(序跋)이 부재하며 저자도 미상인 상황에서 서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보신편』은 특별히 서문과 범례, 목차, 발문 등은 없고, 오로지 본문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의안과 그 외의 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의안은 총 143개이며 56쪽에 걸쳐 쓰여 있다. 대부분의 의안은 구체적인 환자의 이름이나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일부’(一夫), ‘일부’(一婦), ‘일인’(一人), ‘일소아’(一小兒)라는 단어를 통해 익명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후 『경보신편』은 방문(方文), 복영사법(服靈砂法), 우병방(牛病方), 당창(唐瘡) 등에 대한 필기가 있으며, 이는 저자의 편의에 따라 배치한 듯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은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경보신편』의 필사연대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서명 옆에 “壬戌六月”이라고 연월을 밝힌 부분을 통해 구체적인 필사연대를 1922년, 1862년, 1802년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조선 후기라고 한정할 수 있는 것은 『경보신편』과 합본되어 있는 『경험방』에서 ‘찰병요결(察病要訣)’이 등장하는 것에 근거한다. ‘찰병요결’은 진단 및 치료에서 요체가 될만한 내용을 가결(歌訣) 형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찰병요결』이라는 서명의 책도 제법 전해지고, 『제세보감(濟世寶鑑)』과 『의문찬요(醫門纂要)』에도 그 내용이 일부 실려 있다. ‘찰병요결’의 대부분은 그 간행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구 재전당서포(在田堂書鋪)에서 발행한 신식연활자본이 1930년에 간행되었고, ‘찰병요결’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세보감』과 『의문찬요』 역시 일제강점기에 간행되었다. 이로써 유추해본다면 비록 ‘찰병요결’의 간행연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체로 조선 후기 이후에 성행한 글의 방식이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경보신편』과 함본되어 있는 『경험방』에도 ‘찰병요결’의 내용이 있고, 글의 구성과 표지, 필체 등을 고려할 때 『경험방』과 『경보신편』이 동일한 인물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보신편』이 조선 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보신편』의 저자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단서가 부재하여 구체적으로 고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단 본문에 “長興李生在國”이라는 인명이 유일하게 등장한다. 이로써 『경보신편』의 의안을 작성한 의사, 즉 저자가 장흥 이재국과 친분이 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선 후기의 장흥 이재국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추가적인 자료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흥(長興)” 외에도 “포인(浦人)”, “영남(嶺南)”, “소읍(沼邑)” 등, 지역적 특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글자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저자가 남쪽 지방의 물가가 있는 지역에서 의업을 했던 인물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경보신편』의 구성상 ‘中男少年病神方’이라는 분류에서 저자 본인에 대한 의안을 2건 기록하고 있으므로, 저자는 저술 당시 중년의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술한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된 후에 『경보신편』의 저자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재차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구성과 내용

앞서 간략하게 밝혔듯이 『경보신편』의 구성은 크게 의안과 의안이 아닌 부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총 76쪽의 분량 중에서, 56쪽에 해당하는 분량에 의안이 143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에는 복영사법(服靈砂法), 시속영사복법(時俗靈砂服法), 제방(諸方), 우병방(牛病方), 당창(唐瘡), 달마화상지병인생사(達摩和尚知病人生死)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편의를 위해 의안이 아닌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개술한 뒤에 의안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복영사법(服靈砂法)’은 영사(靈砂)를 복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음문(陰門)이 빠져나온 경우에는 [영사를] 승마·애엽·산수유 달인 물에 먹는다(脫陰戶, 升麻·艾葉·山茱萸湯下).”와 같이 질환에 따라 영사의 복용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 되어 있다. 『경보신편』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서술로 총 39개의 질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脫陰戶, 重舌, 癰疹, 諸氣逆上, 諸疳, 腹痛, 大小便不通, 胸膈痛, 水腫, 久膈, 口不開, 腎熱, 鼻中折傷, 血虛, 消渴, 夢泄, 疝氣痛, 脹滿, 頭風, 嘔逆, 心熱, 癰亂, 諸痰, 痘疹, 肉食積, 眼疾, 癰疾, 陰虛火動, 傷寒熱病, 經不調無嗣, 聲嘶, 腰痛, 汗不出, 眩暈, 單蛾雙蛾, 咽喉痛, 癰瘡, 諸瘡, 口眼喎斜,

이어서 등장하는 ‘시속영사복법(時俗靈砂服法)’ 역시 영사를 복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時俗’이라고 구분한 것으로 볼 때 저자 활동 당시에 성행하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도 영사의 활용법을 질병별로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복영사법’에서는 매우 간결하게 10글자 이내로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시속영사법’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길게 서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질병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眼疾, 皮風瘡, 項背連珠, 痔疾及諸瘡, 楊梅瘡·大風瘡·走馬疳, 脚氣痛, 滯症, 胸腹脚氣痺痛, 脰腫症, 暑傷症, 吐血症, 風濕, 小兒驚風,

이후부터는 ‘제방(諸方)’에 대한 방문(方文)이 등장하는데 처방의 구성과 주치를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그 중에는 『동의보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처방도 있는가 하면, 일기탕(一奇湯)과 같이 정확

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처방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두진방(痘疹方)으로 소개된 가미승갈탕(加味升葛湯)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방명은 다음과 같다.

保産止瀉湯, 芎止正氣散, 加減正氣散, 加減正不金散, 加味小柴胡湯, 麻黃升麻湯, 加減柴令湯, 柴胡君子湯, 加味蒼朮柴四湯, 香金散, 六香丹, 白芍梔根散, 紫莞丸, 加味三陳湯, 二神散, 人蔘敗毒散, 一奇湯, 加味升葛湯, 産子丸, 雀舌膏, 苦練根湯, 如用蘓合丸, 加味三疝湯, 九靈丸, 槐香元, 通聖五寶丹, 常山飲, 助正湯, 阿魏丸, 加味六君子湯,

방문(方文)에 대한 서술이 끝나면, 소에 쓰는 처방을 논한 ‘우병방(牛病方)’이 한 페이지에 걸쳐 서술되어 있고, ‘당창(唐瘡)’과 ‘달마화상(達摩和尚)’이 병자의 생사를 점친 방법’이 마지막 한 페이지 분량에 서술되어 있다. 이것으로 『경보신편』의 본문은 끝난다.

뒷 표지의 반대편에는 “의학의 도리 지극히 복잡하여 가장 깨우치기 어려우니, 누가 이 속에 있는 오묘함을 알 것인가[醫道至迷莫難質, 誰識玄機此在中]”라고 쓴 글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책의 필사자나 이 책의 유통과정 중에 소지했던 사람이, 『경보신편』에 대한 자부심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보인다.

이제 『경보신편』의 의안의 구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경보신편』의 의안은 완전하게 필사되지 않은 의안 1개를 포함하여 모두 143개이다. (설명을 위해, 맨 앞에 나오는 의안부터 의안에 각각 번호를 매겨서 설명하기로 한다.) 『경보신편』의 의안은 간혹 필사자가 직접 의안의 소분류를 기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맨 앞 4개의 의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질(眼疾), 적리(赤痢), 정활(精滑), 노력후범방(勞力

後犯房)에 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소제목을 ‘잡병신방(雜病神方)’으로 설정하였다. 이 4개의 의안이 등장한 이후에는 부인(婦人)을 대상으로 한 의안이 총 46개 등장한다. 이 부분 역시 소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소아문’을 참고하면 ‘부인문(婦人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된 질환은 유산(流産), 임신질환(妊娠疾患), 산후제증(産後諸症), 간질(癇疾), 창증(脹症) 등 다양하다.

다음에는 ‘풍간신방(風癇神方)’이라는 소제목 아래 관련된 의안 8개가 등장한다. 이는 풍병(風病)과 간질(癇疾)에 대한 의안이다. 그 중에서 마지막 의안(058)은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 이후에는 ‘소아문(小兒門)’의 의안이 총 6개 등장하며, 그 구체적인 질병은 비통(臂痛), 감기(感氣), 소복통(小腹痛), 경축(驚搐), 천축(喘促), 설사(泄瀉)에 관한 것이다.

이어 『경보신편』의 의안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소년병신방(中男少年病神方)’이 나온다. 성인 남자에 대한 의안을 기재한 것으로 모두 63개의 의안이 기재되어 있다. 『경보신편』 의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로써 『경보신편』 의안에 등장하는 의사는 당시 성인 남자 환자군을 많이 진료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중남소년병신방’의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학질(瘡疾)과 홍진(紅疹)처럼 명확하게 병명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병인(病因)과 병기(病機)를 통해 증상을 묘사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 16개의 의안은 ‘노인제증신방(老人諸症神方)’으로 노인 환자에 대한 의안이다. 구체적인 질환은 양일학(兩日瘡), 견비통(肩臂痛), 감기(感氣), 사지동통(四肢疼痛) 등 다양하다. 『경보신편』 의안의 분류에 대해서 상술한 것을 정리하자면, ‘잡병신방’(4개), ‘부인문’(46개), ‘풍간신방’(8개), ‘소아문’(6개), ‘중남소년병신방’(63개), ‘노인제증신방’(16개)이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처방을 중심으로 『경보신편』의 의학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보신편』의 의안에 등장하는 처방의 총 개수는 110여 개이며, 침구와 관련된 기록은 2개로 드물고, 대부분의 처방은 약 처방이다. 『경보신편』 의안은 대체로 하나의 처방만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2개 이상의 처방이 다양한 가감법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로써 『경보신편』의 저자가 매우 엄밀하면서도 유연하게 치료에 임한 의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혹 이 처방들의 말미에는 “方見眼門”처럼 처방의 출처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출처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대체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소제목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보신편』의 저자가 『동의보감』을 체득하여 임상에서 구현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경보신편』 의안의 의사가 『동의보감』을 근거로 임상을 펼쳤다는 것은, 그의 처방 경향성과 빈도를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경보신편』에 빈용된 처방으로는 이진탕(二陳湯), 사군자탕(四君子湯), 사물탕(四物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평위산(平胃散)을 들 수 있는데, 이 처방들은 『동의보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처방이다. 특히 보중익기탕은 『경보신편』 143개 의안 중에서 23번 등장할 정도로 빈용되는 처방이며, 가감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위 처방들이 『경보신편』 의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다.

주지하듯이 상술한 처방들의 의사학적 연원은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로 귀결한다. 보중익기탕은 이동원(李東垣)의 대표적인 처방이며, 금원사대가의 학설이 독창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동의보감』에서도 이 처방은 50회가 넘게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진탕, 사군자탕, 사물탕, 평위산은 주단계(朱丹溪)의 기혈담울론(氣血痰鬱論)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는데, 이에 대해서는 왕륜(王綸)의 언급을 참고할만하다. 단계(丹溪)의 학문을 전승하여 잡병(雜病)을 치료하는 심법(心法)을 깊이 체득한 왕륜은 주단계의 의학에 대해서 “단계선생(丹溪先生)의 질병 치료는 기(氣)·혈(血)·담(痰)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약을 쓰는 요점은 세 가지이다. 기는 사군자탕(四君子湯), 혈은 사물탕(四物湯), 담은 이진탕(二陳湯), 오래되어 울(鬱)에 속하는 병은 울을 치료하는 처방을 만들어 월국환(越鞠丸)이라고 하였다.”¹라고 평가하였다. 즉 이진탕, 사군자탕, 사물탕, 평위산²의 빈용은 단계학과(丹溪學派)의 영향이고 이것이 『동의보감』에도 그대로 내재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보신편』의 의학사상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경보신편』이 『동의보감』의 처방만을 준용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동의보감』에서 이진탕, 사군자탕, 사물탕, 보중익기탕, 평위산 등의 처방이 빈용된 것은, 그만큼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을 울(鬱), 담(痰), 혈허(血虛), 기허(氣虛), 비위허(脾胃虛)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보신편』에서도 다수 질환의 원인을 상술한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므로 『동의보감』식 질병관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경보신편』의 의사가 위와 같은 질병관을 좇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병의 표본(標本)·허실(虛實)을 무척 세밀하게 다루어 그에 따라서 가감하고, 체질에 따른 동병이치(同病異治)를 주요 요소로써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동의보감』 질병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의학은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다[醫者意也].”라는 교훈과 “외증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外證雖同, 治法迥別)”라는 원칙이 임상에서 응용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므로 의미가 깊다.

1 왕륜이 지은 『명의잡저』(明醫雜著)의 원문과 해석은 『各家學說』에서 재인용. 陳大舜, 曾勇, 黃政德(맹웅재 외 역), 『각가학설(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4. 234p

2 왕륜이 언급한 구체적인 처방은 월국환(越鞠丸)이지만 울(鬱)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이는 평위산(平胃散)과 상통하는 것이다.

3. 의의

『경보신편』 의안의 발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경보신편』이 『동의보감』식 임상을 증언하는 자료라는 점이다.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의료지식은 매우 방대한데 비해,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임상 사례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미미한 편이다. 이 때문에 『동의보감』이 가지는 의학적 가치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각각의 내용이 실제 임상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문헌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 다행히 그동안 장태경의 『우잠잡저』와 이수귀의 『역시만필』이 소개되어 일부 사례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 『경보신편』의 의안이 추가되어 임상서로서 『동의보감』의 모습을 고증할만한 근거를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경보신편』의 의안은 『동의보감』이라는 의서가 당시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동시에, ‘의서’의 내용이 실제 임상에서 운용되는 또 하나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보신편』에서는 이진탕, 사군자탕, 사물탕, 보중익기탕, 평위산을 활용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여, 『동의보감』식 기혈담울(氣血痰鬱) 치료에 대한 임상 자료를 다수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보신편』만이 갖는 특징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보신편』은 단순히 『동의보감』의 내용을 증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때때로 『동의보감』에서 밝히지 않은 임상의 미묘한 지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점이 본고에서 지적하고 싶은 『경보신편』 의안의 두 번째 의의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임신한 부인의 전포증(轉脬證)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가감방(加減方)을 사용하는데, 저자가 환자의 집이 빈궁하여 위기(胃氣)가 허손(虛損)할 것을 유추하여 이렇게 운용한 것이다(006). 『동의보감』에서는 부인의 전포증에 목통(木通)·차전자(車前子)와 같은 이뇨약과 사물탕 가감방 등

을 치료 처방으로 제시했을 뿐, 보중익기탕 가감방은 밝혀두지 않았다. 임상 현장은 이론이 전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경보신편』의 저자는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임상을 펼치면서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에 따라 『동의보감』의 내용을 확장시켜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경보신편』에는 당시 의료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어떤 환자에게 육군자탕(六君子湯)을 많이 복용시키고 싶었으나 환자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이를 멈출 수 밖에 없었고(037·055), 이 재국(李在國)에게 정전가미이진탕(正傳加味二陳湯)을 30첩 처방하였으나 그 역시 가난하여 10첩만 복용하고 복약을 멈추었다(107). 이렇게 『경보신편』에는 독특하게도 환자의 경제사정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묘사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경보신편』의 의안은 부인, 소아, 성인남자, 노인의 질환을 구분하여 기록해 두어 각각의 환자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드러난다. 특히 만삭의 아내가 유산한지 모르고 의사에게 물어 불수산(佛手散)으로 치료하는 내용(005)은 당대 민간의 의료 현장을 잘 묘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예이다. 『경보신편』의 이러한 현장성은 사료적으로서 가치가 크다.

민간 의료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다른 예시로는 ‘장향(瘴鄉)’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는 장기(瘴氣)가 서려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통상 물과 기후로 인하여 풍토병이 생기기 쉬운 지역을 의미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장향은 전국적으로 곳곳에 존재했지만, 이 단어를 『경보신편』 속의 “浦人”, “嶺南沼邑”, “長興李生在國” 등의 단어와 병치시켜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장향의 구체적 지명은 경상도 진주목이나, 전라도 지역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경보신편』의 안에서는 장향과 관련한 기록이 다수 있는데, 대체로 장향에 머무른 것이 병을 유발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노인이 장향에서 여름을 보내고선 적백리(赤白痢)가 심해졌고(140), 한 부인이 장

향에서 여름을 보내고선 이가 아픈 증상 등이 생기기도 하였다(039). 이로써 당대의 풍토병이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질병 양태이며 장기가 주요한 질병 병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수된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던 남쪽 지방의 의료현실도 엿볼 수 있다.

또한 『경보신편』이 인삼의 유통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대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인삼으로 추정되는 호삼(胡蔘)이 『경보신편』의안 곳곳에서 인삼 대신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018·037·085·094). 이 의안들에는 가난한 환자에게 인삼이 들어간 처방을 써야할 경우 호삼으로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마련하지 못하면 인삼을 빼고 썼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인삼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재로 인식 되었지만 매우 귀하어 비쌌고, 그 대체재로 가격이 싸지만 효과도 떨어지는 대체품으로 호삼이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당대의 인삼 무역과 연결지어 고증해 본다면,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경보신편』의 다양한 의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본고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경보신편』의 의안은 향후 콘텐츠의 가공방법에 따라, 의학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 사료, 문화콘텐츠,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경보신편』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